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보도	배포시	배포	2021.4.27.(화)		
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(02-2100-2650)	담 당 자	김경호 사무관(02-2100-2655)
	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송 영 훈(02-3774-8505)		정규일 부장(02-3774-8580)
	한국증권금융 자금운용본부장 홍 인 기(02-3770-8504)		박상묵 부장(02-3770-8890)
	코스콤 금융사업본부장 황 선 정(02-767-8007)		김재연 부장(02-767-8300)

제 목 : 금융위원장, 공매도 재개 관련 현장 모의테스트 참석

-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월 27일(화요일) 한국거래소(서울사무소)를 방문하여 금융투자업 유관기관 및 증권사가 참여하는 현장 모의테스트에 참석하였습니다.
- 이번 모의테스트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재개를 앞두고 관련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최종 점검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.
- 현장 참석인원 최소화를 위해 대부분의 증권사는 각 사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.

< 현장 모의테스트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1.4.27.(화) 15:00~16:00 /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
- ※ 전산테스트는 정규 거래시간이 종료된 이후(15:30) 실시
- 참석자
 - (금융위) 금융위원장
 - (유관기관) 한국거래소 이사장, 한국증권금융 사장, 코스콤 사장
 - (증권사) 38개社

□ 테스트 현장에서는 가상의 기관·개인 투자자를 설정하고, 투자자가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단계부터 거래소 전산망에 해당주문이 집계되는 단계까지 쏘 과정을 시험하였습니다.

○ 특히,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관련하여

i)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*(4월 6일 시행)에 따라 해당 보관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

*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, 상대방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함

ii) 공매도 부분재개 종목*에 한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.

*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

○ 온라인 참여 증권사도 거래소 테스트전산망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,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.

□ 금융위원장은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 전산오류 등으로 인한 투자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점검·보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○ 이를 위해 거래소는 남은 기간 테스트전산망을 24시간 가동하여 증권사에서 마지막까지 자체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